



보해양조 모델 송가인

앞새주 모델에 송가인 발탁 보해양조, 공격 경영 나선다

보해양조 철학과 잘 어울려
내년 창립 70주년 재도약
가격 동결 효과...매출 상승
마을잔치 등 지역화합 마케팅

보담하고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최근 전국적 인기를 끌고 있는 진도 출신 트로트 가수 송가인과 앞새주 모델 계약을 맺고 두 자릿 수 시장 회복에 나선다.

지난 5월 '미스트롯'에서 우승한 뒤 국내는 물론 미국 등 해외 콘서트에서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송가인은 최고의 모델들만 한다는 소주 모델에 선정돼 '대세'임을 또 한번 입증했다.

보해양조는 진도 출신으로 세대를 아우르며 전국적인 인기몰이 중인 송가인이 69년 향토기업인 앞새주 모델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오랜 준비 끝에 '송가인 프로젝트'를 성사 시켰다. 특히 천부적인 재능과 피나는 노력으로 국민가수 반열에 오른 송가인이 지난 69년 동안 좋은 술 한 잔만 추구해온 보해양조의 철학과 가장 어울리는 모델로 평가했다.

지난 2002년 출시된 앞새주는 최고 인기 스타들을 모델로 발탁해 왔다. 첫 모델인 장나라를 비롯해 러원(2005년~2006



년), 김옥빈(2007년), 한지민(2008년), 백지영(2009~2012년), 흥진영(2015년)에 이어 가장 최근에는 걸스데이 헤리(2016~2017년)가 앞새주 모델로 활약했다.

하지만 경영악화로 인해 지난 2017년 이후 모델을 기용하지 않다가 송가인을 전격적으로 발탁하면서 재도약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나설 계획이다.

보해양조는 국내외 남녀노소 다양한 팬들에게 사랑 받으며 2019년 최고의 한해를 보내고 있는 송가인과 최상의 시너지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보해양조는 우선 송가인의 진도 고향마을에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진도 군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한 마을잔치를 마련했다.

특히 송가인은 미스트롯 전국 콘서트,

미국 순회 공연, 국내 단독 콘서트를 펼치는 바쁜 와중에도 향토기업인 보해양조 앞새주 모델 계약서에 최종 서명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는 진도 출신으로 지역에 대한 그녀의 남다른 관심을 보여준다. 실제 그녀는 "전라도에서 탐 찍어볼고, 서울에 탐 찍어온 송가인이라"는 구수한 전라도 방언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사용하며 전국적으로 전라도 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 전남관광 홍보대사를 맡는 등 지역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최근 방송된 송가인 단독 콘서트 '가인이아라'가 본편과 재방송에서 10%에 육박하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세 번째로 방송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송가인이 참여하는 행사가 열릴 경우 대규모 지역 축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지선 대표는 "보해양조 소비자와 지역민들을 위해 앞새주 출고가격을 올리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출이 조금씩 향상 되고 있어 지역민과 소비자께 감사드린다"며 "2020년 창립 70주년을 맞는 보해양조가 재도약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송가인이 앞새주 모델로 합류해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송가인은 미스트롯 전국 콘서트,

단계별 맞춤 지원 기업 애로 183건 해결

산단공 광주전남본부
성장 유망 30개사 집중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5월 기업성장지원단 출범 이후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기업 애로사항 183건을 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기업성장지원단은 지난 2011년부터 8년동안 운영한 기업성장지원센터 노하우를 집약한 산단공단의 차별화된 기업지원 플랫폼이다. 광주·전남지역 기업 성장 수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지난 5월 출범했으며, 기술·수출·금융·관세 분야별 전문가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원단은 ▲성장유망기업 애로 발굴·해결 ▲중점육성기업 성장 지원 ▲프로젝트 연구개발(R&D) 과제 지원 ▲스마트화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해 분야별 성과를 냈다.

올해는 성장유망기업 30개사를 선정, 1개사 1과제 발굴·해결을 원칙으로 총 36건의 과제를 지원했다. 또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형 코칭 133건, 과제 14건을 수행하는 등 총 183건의 애로 사항을 해결했다.

특히 중점육성기업 5개사는 성장잠재

력과 최고경영자(CEO)의 혁신의지를 평가해 2년간 집중 지원한다. 기업별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전문위원 간 협업을 통해 육성과제 11건 수행했다. 지원단은 이들 5개 기업을 강소·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인특장의 경우 지원 프로세스를 통해 수립된 성장전략에 따라 '산림관리용 3.5t급 4륜구동 차량'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R&D 과제를 기획했으며, 앞으로 2년간 10억 5000만원을 지원해 과제를 수행 중이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도 올해 7개사에 이어 내년엔 11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첨단산단 1·2단지 등 광주 북구지역 산업단지 지원플랫폼 일원화하고, 수혜기업을 늘리기 위해 광주 북구와 내년도 사업계획을 공동 수립하고 있다.

이행만 산단공 광주전남본부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지역 기업의 생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합 지원체계를 갖춘 기업성장지원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내년 광주 북구와 함께 하는 사업을 통해 증가하는 컨설팅 수요에 적극 대응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점육성기업 5개사는 성장잠재

기업 3곳 중 2곳 "장기형 불황...내년 긴축경영"

경총, 기업경영 전망 조사

"내년 경제성장률 평균 1.9%"

국내 기업 3곳 중 2곳이 현재 경기상황을 '장기형 불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절반 가량은 내년에 '긴축경영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지난달 20~29일 경총 회원사와 주요 기업 206곳을 대상으로 '2020년 기업 경영 전망 조사' 결과, 현재 경기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64.6%가 '장기형 불황'이라고 답했다. '일정 기간 경기저점을 유지한 뒤 회복될 것'이라는 응답은 19.2%, '경기 고점 통과 후 점차 하락'이라는 답은 13.1%였다. '경기 저점 통과 뒤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답은 2.4%에 불과했다.

기업들이 예상한 내년 경제성장률(국내총생산(GDP) 기준)은 평균 1.9%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 중 가장 많은 43.9%가 '1.5~2.0%', 이어 38.0%가 '2.0~2.5%'로 전망했고, 17.1%는 '1.5% 이하'를, 1.0%는 '2.5% 초과'를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절반 가까운 기업이 투자를 축소하고 인력을 조정하는 등 긴축경영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주된 경영계획 기조로는 가장 많은 47.4%가 '긴축 경영'이라고 답했고,

'현상 유지'는 34.1%, '확대 경영'은 18.5%로 각각 조사됐다.

긴축경영의 구체적 조치로 '전사적 원가 절감'(29.0%)과 '인력 부문 경영 합리화'(25.0%)를 계획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신규투자 축소'(15.3%)와 '사업 부문 구조조정'(13.7%) 등이 뒤를 이었다.

내년 경영환경의 주된 애로 요인으로는 노동정책 부담(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을 꼽은 응답자가 33.4%로 가장 많았다. 내수 부진(29.1%), 대외여건 불확실성(16.8%), 기업규제 강화(10.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중점육성기업 5개사는 성장잠재

■ 로또복권 (제1888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3	7	12	31	34	38	32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370,359,204			8	
2	5개 숫자+ 보너스숫자일치	53,567,440			59	
3	5개 숫자일치	1,288,414			2,453	
4	4개 숫자일치	50,000			123,025	
5	3개 숫자일치	5,000			1,990,715	

목포 아파트 숲에 묻힌 수협 송신소 내년 이전

목포 아파트 숲에 묻힌 수협 송신소가 내년 이전을 추진한다.

8일 수협중앙회 목포어선안전조업국에 따르면 수협은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송신소 이전 부지를 연말까지 선정하고 내년부터 이전을 추진한다.

송신소는 수협중앙회 소유로, 991㎡(300평) 부지에 169㎡(51평) 규모로 조성됐다.

용해동의 한 야산에 자리한 이 송신소는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잦은 송신 오류를 겪어왔다. 송신소 반경 500m 안에는 15~20층 규모 아파트 5개 단지가 몰려있다. 내년에는 송신소에서 200m 떨어진 곳에 19층 규모 아파트 411세대에 대한 입주가 예정됐다.

명호경 목포어선안전조업국장은 "용해동 송신소는 수협이 목포지역에서 유일하게 소유한 송신 시설로, 안정된 신호를 보내기 위해 이전을 결정했다"며 "고층 건물이 없는 서쪽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 박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유·스퀘어 담배냄새 없는 청정터미널 만든다

전 사업장 금연구역 선포

광주시 금연환경 우수업체 표창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가 전 사업장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하며 '청정터미널 만들기'에 앞장서 주목된다.

8일 유·스퀘어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과 함께 유·스퀘어뿐만 아니라 전주, 목포, 여수, 순천, 해남터미널 등 전 사업장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하고 꾸준히 금연을 유도해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광주시로부터 '금연 환경 조성 우수업체'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유·스퀘어가 이처럼 금연 활동에 앞장서는 이유는 정부 보건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터미널 이용객들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해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이후 흡연구역을 둔 터미널, 광장, 역사, 버스정류장 등에서는 여전히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피



금연구역으로 선포된 광주 유·스퀘어 전경.

해가 발생하고, 담배꽂초 등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버스정류장·지하철 출입구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며 각종 금연 정책을 펼치지만, 민간기업이 앞장서 터미널의 금연 환경을 조성한 건 매우 드문 사례다.

여기에는 유·스퀘어의 모기업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연 방침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

유·스퀘어 관계자는 "직원 모두가 정부의 금연정책을 앞장서 이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금연환경 조성에 힘써왔다"며 "특히 터미널이 그 지역의 관문이기도 한 만큼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